



시로 읽는 성보순례
표충사 청동함 은향완
국보 제75호 표충사청동함은향완
고려시대 ▶2면

도박으로 재물을 구하지 말고,
부적절하게 재물을 구하지 말며,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지 말라.
『중야왕경 제33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8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06호 2012년 9월 19일 수요일

생협 필요성 커지는데 불교계는 '제자리걸음'

2012 UN 협동조합의 해 불교생협의 현 주소는

올해는 UN이 지정한 협동조합의 해다. 세계에는 많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고, 한국에도 소비자부터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특히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결성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생활협동조합인가

민중적 대안 경제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은 심화되는 양극화 경향과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협도 마찬가지다.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상생적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이런 가치들은 불교의 생명평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운동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는 6월 12일 인드라망 마늘학교 강연에서 "생협은 무분별한 소비 중심의 도시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식문화 위기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소비구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활성화되는 생협, 불교계는?

이 같은 사회적 가치들은 최근 들어 활발히 구현되고 있다. 한살림, 아이쿱(ICOOP), 여성민우회 등 주요 생협의 조합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협 연장으로 이뤄진 아이쿱 생협의 경우 조합원이 2010년 11만 세대에서 2011년 15만 세대로 31%가 늘었다. 공급액도 2011년 2900억 원으로 32%가 증가했다. <위 표 참조>

이런 주요 생협의 친환경농식품 공급액은 국내 식품 시장규모의 0.5%, 친환경농식품 시장의 13%에 달하며, 참여 생산자 농가 수도 6천 농가에 이른다.

일반 사회의 생협들은 일취월장하고 있지만 2천만 불자를 소비자로 한 불교계 생협의 상황은 '지지부지' 하기만 하다. 2006년 11월 불교생협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서울 불광사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한국 주요 생협 조합원 수 및 공급액 현황 (단위: 개소, 세대, 백만원, %)

구분	지역조합수	조합원수			공급액		
		2010	2011	증가율	2010	2011	증가율
한살림	30	247,072	293,442	18.8	186,686	222,581	19.2
아이쿱생협	75	118,824	155,705	31.0	219,674	290,132	32.1
두레생협	23	85,022	103,874	22.2	66,674	75,072	12.6
민우회생협	5	22,792	26,736	16.4	16,962	17,015	0.3
합계	123	473,890	579,757	22.3	489,996	604,800	23.4

노동공동체 대안으로 부상

한살림 등 두 자리수 성장

불교, '인드라망' 만 분투

불자농민 없고, 소비층 열어

공생의 착한 소비 풍토 필요

여법한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불교생협연합회는 창립하지 못하고 와해됐다. 사찰 생협 매장 증가도 답보 상태이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곳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대표 도법)의 생협 뿐이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도 2009년 연꽃 생협을 출범했지만, 활발히 운영되는 편은 아니다.

농민운동을 간과한 결과물들

유독 불교계의 생협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불교적 가치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생산자군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웃종교의 경우 카톨릭농민회나 정농회(개신교) 같은 농민운동 단체들이 1960~70년대 창립돼 현재까지도 조직을 유지 중이다. 실제 카톨릭농민회는 한살림 생협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정농회도 별도의 생협을 운영하고 있다. 농민, 도시민 대상 포교와 불교적 운동의 부재가 현재 불교 생협의 고전을 불러온 것이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이사는 "생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운동의 가치를 이해하며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이를 소비할 소비자, 그리고 이들을 이어줄 상근 활동가가 필요하다"며 "불교는 이 같은 총

체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생산·소비·유통 선구조 만들어야 인드라망 생협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1998년 귀농학교를 시작해 적지 않은 농부들을 길러냈고, 이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어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자가 생기기 조합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만 500명 가량이 조합원으로 새로 가입했고, 현재 1100여 명이 활동 중 이다. 매년 적자였던 수익구조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꾸준한 귀농운동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정호 이사는 "귀농 인구가 점차 늘고 있고, 불교 귀농학교 졸업생들도 적지 않다. 생산자군에 대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했다"며 "이제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일선 사찰과 현장 실무자, 단체가 결합해 함께 활동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환경의제 21'의 공동실천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공양미 울리기'는 일선사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협 운동이다. 하지만 봉은사, 도선사 등 20여 곳을 제외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찰 생협 매장 증대를 통한 유통구조 활성화도 다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 상품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출 시킬 필요가 있어서다.

정우식 연꽃생협 이사장(대한불교청년회회장)은 "생산자 확보와 유통구조 확립,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군 형성이 중요하다"며 "'공존공생'이라는 큰 기조 아래 착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불교계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관련 기사 6면



어르신, 따뜻한 추석 보내세요

추석을 맞아 해외 교환 학생 등 동국대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동국참사람봉사단 소속 학생 60여 명은 9월 13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추석맞이 어르신들과 정 나누기' 배식봉사를 하며 3000여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추석을 맞아 해외 교환 학생 등 동국대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동국참사람봉사단 소속 학생 60여 명은 9월 13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추석맞이 어르신들과 정 나누기' 배식봉사를 하며 3000여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팔상록' 뒷면서 군사기밀 문서 발견

불교학술원, 불교아카이브 조사중 발견 사료 발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 일환으로 평창 지암정사에서 소장도서로 조사하던 중 '팔상록' 이면에서 병인양요 직전 강화도 내 군사 문자 현

황을 담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팔상록'은 1854년 필사된 언해본으로 이면에는 1854년 당시 군사 요지였던 강화도의 군사 내역이 소상히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발견된 군사기밀문서는 다음 강화유수에게 업무 인계를 하며 작성한 문서"라며 "추정단계지만 <팔상록>을 제작한 우봉 최 씨가 용도가 다른 기밀문서를 경전종지로 재활용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불교경전을 활용한 군사기밀문서 보관 및 전달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팔상록' 이면의 군사문서에서 눈

길을 끄는 점은 군사무기 외에도 전등사(傳燈寺) 등 강화 소재 사찰과 암자의 숯(鼎) 개수도 파악돼 있다는 점이다. 기록에는 전등사 숯 7좌, 천제암 1좌, 진해사 1좌가 기록돼 있다.

이종수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당시 강화도 15개 사찰 중 정족산성 인근의 사찰들로 당시 사찰이 군사보급 요충지로 활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야단법석2' 열린다

9월 19일부터 10차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계사에서 10차례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야단법석 시즌2'를 진행한다.

19일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첫 '야단법석 시즌2'는 고우 스님과 도법 스님의 문답으로 진행된다.

'종단의 공직자', '사부대중의 미래', '우리 시대의 청규' 등의 의제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청규제정위원회 위원장 설우 스님 등이 강론자로 나선다.

'폭력과 갈등', '노동자', '문명전환의 시대' 등의 의제에는 김선우 시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청성산 지킴이 지음스님, 이문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종일 기자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취재부 경력기자 수습기자	약간명	① 경력기자 3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2년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2년 9월 19일 수요일까지
- 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2004-8204, 8205, 8212)

906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노동위 10만배 정진
우수 유치원 불교 교직원 2곳
제16회 종교문화축제

시방세계 5
제4회 나란다 축제 현장



새연재 16·17
여기는 화엄만다라

이웃나라 돕는 월서 스님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전법 일기 - 주경 스님

제4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몸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알아
맛에 탐닉않는 수행자로

2012.10.5 금 - 10.6 토

경기도 수원시 봉녕사

- 프로그램 동문스님들 바자회
바라밀장터
산사음악회 (사회:이수근 1박2일출연)
보시행 속의 경연마당
지계행 속의 시연마당
인욕행 속의 탁발공양마당
정진행 속의 정보마당
선정행 속의 공연마당
지혜행 속의 체험마당

문의 및 안내 봉녕사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m.bongnyeongsa.org



*사찰음식 경연대회 참가신청은 10월 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 참조)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승가대학, 금강율곡승가대학원,
묘엄불교문화재단, 심우불교대학, 선우회,
진여회, 거사림회, 관음회, 승만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방경찰청